

OXYMORON: 모순형용

살면서 한번씩은 삶에 도움이 안되는 친구를 사귈다.

반대로 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친구가 된 경험이 있을 것이다.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시너지가 난다.

재미는 몇배가 되지만 무모함도 몇배가 된다.

서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없는 친구

함께 있으면 재미'만' 있는 친구

하지만 무모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.

'모순형용'

소리없는 아우성, 성공적인 실패, 공공연한 비밀

모순되는 단어 두 개가 붙었지만 말이 된다. 오히려 문법적으로 알맞은 말보다 그 상황을 더 완벽하게 설명해낸다.

두 사람의 관계는 모순형용이다.

두 사람은 서로의 길티플레져다.

OXYMORON: 모순형용

“우리는 성공적인 실패야

정돈된 혼돈이고

등근 사각형이야

소리없는 아우성 불행한 행운 말많은 병어리 공공연한 비밀 도시 촌놈 평화로운 폭력 현명한 바보...

즐거운 죄의식이야”

같은 대사의 자인과 상윤의 나레이션이 두 번 반복된 후 이야기가 마무리된다.

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무모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각자의 모순형용 같은 친구, 연인, 가족을 떠올렸으면.

Synopsis

쿨한 성격에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지만 졸업을 앞두고 꿈을 이루는 것에 강박을 가진 **자인**과 전형적인 모범생이지만 대학을 들어온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방황하는 **상윤**은 서로에게 모순형용 같은 존재다. 둘은 각자 나름 일탈이라고 하고 있는 술과 담배를 교환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잠긴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도망간다.

Character Bio

채자인 (26)

디자인학과 졸업을 앞둔 대학교 4학년. 자신을 잘 꾸밈. 히피스타일. 담배 좋아함. 쿨한 성격에 걱정 하나 없을 것 같지만 꿈을 이루는 것에 강박을 가지고 학교 생활도 착실하게 함.



서상운 (26)

명문대 공대 휴학생. 셔츠에 부스스한 머리. 늘 편안한 옷차림. 흔히 말하는 너드.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자란 전형적인 상위권 성적의 모범생,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대학을 들어간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에 방황함. 공부만 한 것도 아니지만 딱히 일탈을 제대로 해본 것도 아님. 일탈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지만 용기가 없음.



Relation

두 사람은 오랜 친구라기 보다는 편의점 앞에서 각자 나름의 일탈이라고 하고 있는 담배와 술을 들고 종종 마주치다가 친해지게 된 사이이다. 두 사람 모두 모범생은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일탈은 무서워 한다.

둘은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미래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. 실없는 소리와 함께 약간의 일탈을 할 뿐이다. 그렇지만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.

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, 우정 등의 말로 정의할 수 없다. 사랑이라기엔 애정이 없고, 우정을 나누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다. 깊지도, 얕지도 않은 둘의 깊이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.